

동아리모임서 만취

【인천=朴喜梯】

대학신입생 또 과음 사망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대학 신입생이 술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 10분경 인천 남구 학의1동 영남아파트 1층에서金門(19·H대)이 학부 1년)이 자신의 집에서 구토를 하다 숨져 있는 것을金門의 어머니(3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원봉사를 하는 학과생이나 정기모임에 참석해 술주 두병을 마신 뒤 귀가한金門이 구토중이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